

37

예수님의 전도

지금은 추수 때

요 4:28~38, 마 9:35~38

찬송가 400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찬양 44장 (주여 오소서)

오늘 배울



1. 지금이 영혼을 추수해야 할 때임을 압니다.
2.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집회에 동참해야 함을 압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낙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하게 되었도다 (요 4:34~35)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할 것은 많되 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에게 청하여 추수할 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 9:37~38)



을 이해하기

농부가 농사를 짓는 목적은 추수 때에 풍성한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농부는 봄부터 땀 흘리고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추수하는 시기가 닥쳤을 때 농부는 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곡식을 거둡니다. 그런데 곡식이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시기는 아주 짧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곡식은 금방 스러져 버리고 조금 지나면 비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농부의 모든 수고와 희생은 헛되고 맙니다. 그래서 추수 때에는 남녀노소 모두 추수에 동참하여 곡식을 한 알이라도 더 거두기 위해 애를 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밭을 갈 때도, 파종할 때도, 가꿀 때도 아닌 거두는 때, 즉 추수 때입니다. 구약시대에 유대인들과 선지자들은 밭을 갈고, 주님은 세상 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한 알의 밀알처럼 죽으심으로 씨를 뿌리셨다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추수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을 거두시기 위하여 작정하신 인류 역사 가운데 마지막 영혼들을 추수하는 때에 살고 있는 영혼의 추수꾼들입니다. 추수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잠만 자는 게으른 일꾼과 추수 때가 다 되었는데도 알지 못하고 방심하여 곡식을 수확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꾼들에게 거두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곡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보다 그런 일꾼들에게 샅을 이미 지불하고 곡식을 수확해 주기를 기다리는 주인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마지막 추수 때에 사는 우리에게 의해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수확량과 곡식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거두는 자가 이미 샀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 4:36)

And he who reaps receives wages, and gathers fruit for eternal life, that both he who sows and he who reaps may rejoice together. (Jn 4:36)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② 거두는 자가 이미 샀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예수님은 전도 여행 중에 피곤하고 시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 와서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은 음식 드시는 일을 뒤로 미루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요 4:31~34)?
- ②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4:35). 그러나 당시는 추수할 계절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추수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3

추수 때 온 가족이 합심하여 이삭 하나라도 줌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추수 때에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의 모습을 적어 봅시다(잠 10:5).

4

하나님이 걱정하신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인 지금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추수 때입니다(고후 6:2). 추수 때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적어 봅시다.

5

아직 복음을 전파하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 봅시다. 그리고 서로 기도 부탁을 해 봅시다(벧전 3:15).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일

잠 10:5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의

마 9:38

화

요 4:35

↑

롬 12:11

↓

고후 6:2

↓

딤후 2:21

↓

벧전 3:15



내일 아침에 합시다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증기선 센트럴 아메리카호는 대양 한가운데서 배에 구멍이 생겨 물이 들어오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구조선이 이 모습을 보고 센트럴 아메리카호로 다가왔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나요?”라고 구조선 선장이 물었습니다.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은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밤이고 또한 승객들도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배도 내일 아침까지는 떠 있을 것 같으므로 내일 아침까지 지켜보고 결정합시다.”라고 센트럴 아메리카호 선장이 대답하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구조선 선장이 다시 말하였습니다. “그래도 위험하니 지금 사람들을 우리 배로 옮겨 타게 하는 것이 나을 텐데요.”

그러나 센트럴 아메리카호 선장은 “내일 아침에 합시다.”라고 다시 한 번 말하였습니다. 결국 한 시간 반 후에 센트럴 아메리카호는 바닷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았으며 혼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안일한 사고 방식으로 구조 작업을 뒤로 미루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지금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질문 있어요~



악한 사람이 잘되고, 선한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일들 때문입니다. 왜 악한 사람이 잘되고, 또 복을 받아야 할 선한 사람들에게 불행이 생기느냐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도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행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라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시 73:2~5)

악인의 행통을 보고 고민하던 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즉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 놓았을 때 그는 답을 얻습니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시 73:16~19)

그는 악인의 운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된 것은 잠깐의 꿈과 같은 것이고, 영원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만사행통하던 악인이 죽음을 통과하여 영원한 세계에서 눈을 떴을 때 자기가 지옥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것이 그 악인들의 결말입니다. 만약에 영원한 내세가 없다면 당연히 의인들에게만 복을 주시고 악인들은 징벌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금세는 잠시 잠깐이고, 내세는 영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애 3:33)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고생과 근심과 불행한 일을 통하여 각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고 구원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닥친 불행이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고, 날 때부터 유전된 병이 구원을 받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이 잘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선한 사람이 불행해 지는 것을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세계를 상속 받기를 원하고 계시며, 그들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